



혼란스러운 1월, 어닝쇼크를 확인할 2월 [요약]

1. 1월의 Winner & Loser

- 2008년 이후 최악의 1월을 보내는 중. KOSPI 지수 1월 -4.8% 하락
- 유니버스 200종목 가운데 152종목 하락. 손해보험주, 은행주 상승 주목
-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유가와 미국 금리의 상승
-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약세 속, 글로벌 주도주의 흐름 또한 부정적

2. 예외가 없는 4분기 어닝쇼크

-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하회, 22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 진행 중
- 20년 4분기, 18년 4분기 이후의 전망치 변화 극명한 차이
- 전망치 달성률이 90%를 넘어선 20년 4분기
- 전망치 달성률이 69.7%에 그친 18년 4분기

3.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

-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 기준 시총 70.2조원, 사상 최대규모 IPO
- LG화학은 상장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 81.8%를 보유
- 상장 첫 날 매도 가능한 물량은 8.7%에 불과
- 수급의 왜곡이 심해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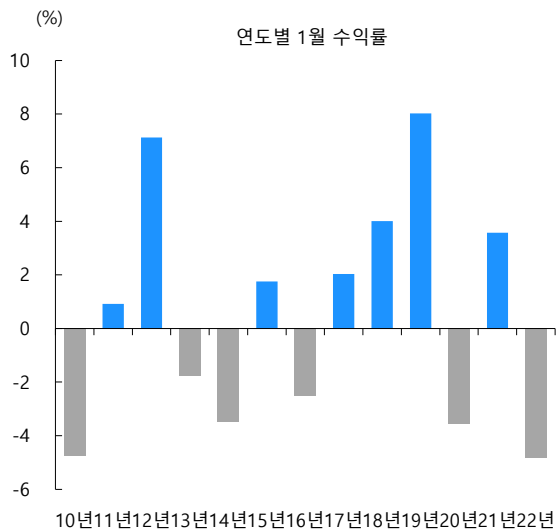
1. Quant Idea(1) – 1월의 Winner & Loser

1월 들어 KOSPI 지수는 -4.8% 하락했다. 15거래일 가운데 10pt 이상 상승은 단 4일에 그친 반면, 20pt 이상의 하락이 나타난 것은 8거래일이었다. 아직 1월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이후 한국 증시는 최악의 1월을 보내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니버스 200종목 가운데서도 152개 종목이 하락했다. 상승한 48개 종목 가운데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12개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3.8%로 증시 대비 Outperform한 가운데, 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다. 손해보험주, 은행주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했다. 반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20~21년 화려하게 데뷔했던 종목과 작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의 하락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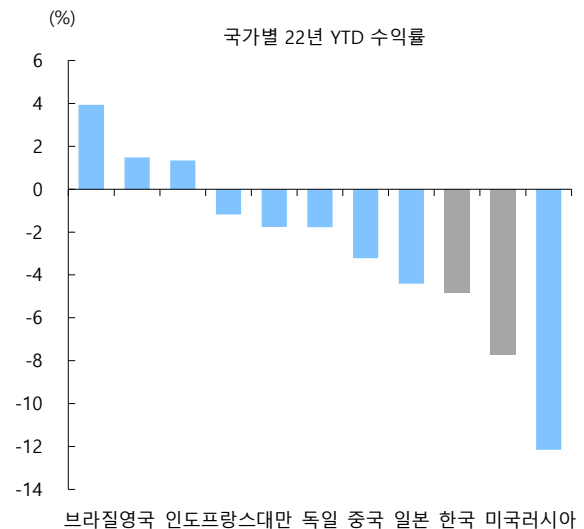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유가의 상승이다. WTI 유가는 작년 11월 80달러를 돌파한 이후 연말께 하락했으나 연초 이후 재차 상승하며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금리의 빠른 상승 역시 글로벌 증시 강세를 주도해 온 미국 증시 성장주의 약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주요국 증시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차트1] 통상적으로 1월은 소폭의 상승이 일반적이나,
22년 1월은 -4.8% 하락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글로벌 주요국의 동반약세 진행 중
브라질, 영국의 차별적 상승 눈에 띈



주: 각국 대표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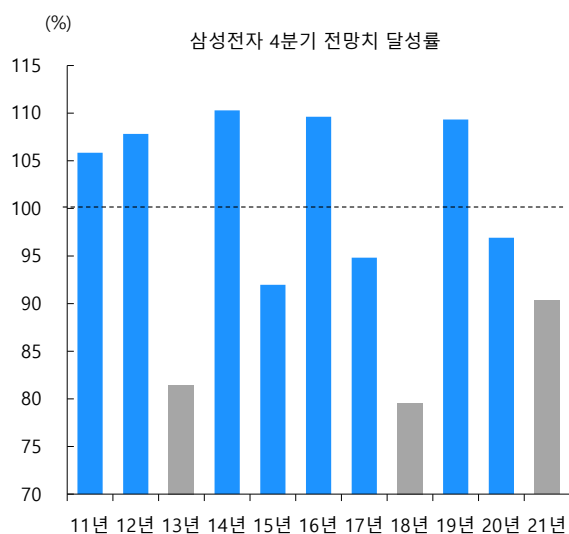
2. Quant Idea(2) – 예외가 없는 4분기 어닝쇼크

지난 7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됐다. 13.8조원의 영업이익은 전망치(15.3조원)를 하회했고, 매출액도 컨센서스를 넘어서지 못했다. 참고로, 이번 4분기 전망치 달성률(90.3%)은 최근 10년간의 4분기와 비교했을 때, 3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4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전망은 벌써 어둡다. 전망치를 하회한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분기 실적 결과에 따른 전망치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것은 20년 4Q 이후의 21년 전망치와 18년 4Q 이후의 19년 전망치였다. 20년 4분기의 경우 전망치 달성률이 90%를 상회하며, 4분기 기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다행스럽다는 평가, 그리고 21년 초 증시 상승이 뒷받침되며 21년 전망치는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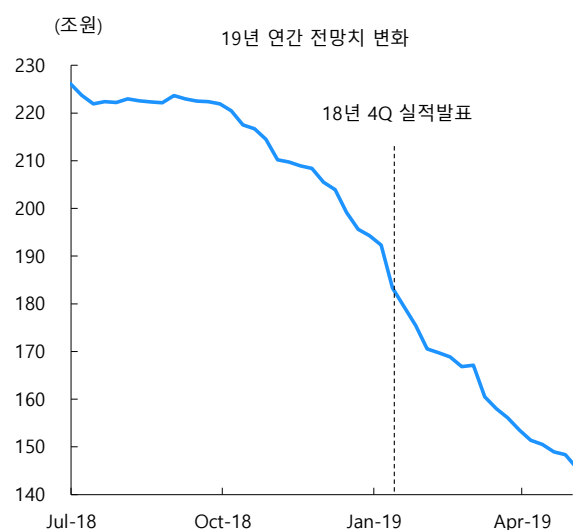
반면, 18년 4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전망치 달성률은 69.7%에 그쳤고, YoY 증감률은 -26.5%를 기록했다. 실적시즌 초반해도 4분기 (+) 증감률이 예상됐지만, 실제치는 이에 못 미쳤고, 그 실망감은 19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차트3] 삼성전자 21년 4분기 전망치 달성률 90.3%
최근 10년래 3번째로 낮은 수치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18년 4분기 증시전체 4Q 전망치 달성률 69.7%
19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짐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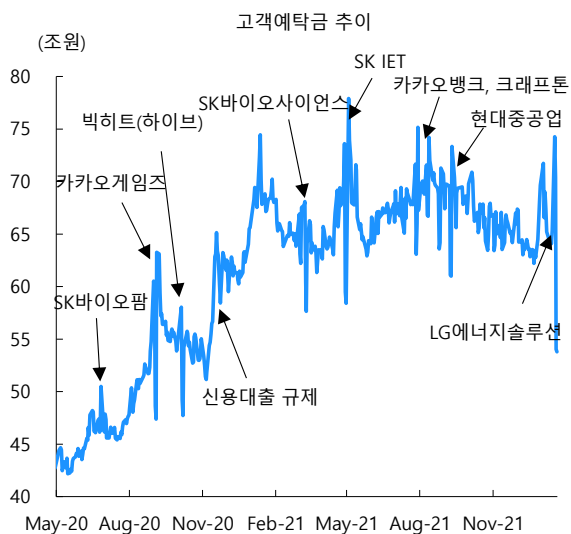
3. Quant Idea(3) –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70.2조원으로 첫날 파상에 성공할 경우 최대 182.5조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70.2조원 만으로도 역대 상장 첫날 최대 시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33.2조원을 뛰어 넘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공모에는 1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렸다.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식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약에 쓰이지 않은 자금은 21일 환불됐다. 최근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 개인 매수의 재개 여부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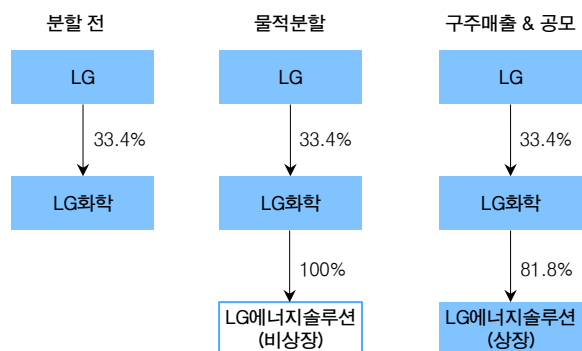
LG화학은 상장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를 보유한다. 우리사주 3.6%를 제외한 14.6%의 지분은 기관이 10.0%, 개인이 4.5%를 보유하게 되는데, 기관 물량 가운데 5.8%에는 의무보유확약이 걸려있다. 즉, 상장 첫날 매도가 가능한 물량은 8.7%에 불과하다. 공모가 기준 6.1조원이다. 수급의 왜곡이 너무 심해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다. 물량 잠김현상이 심화된다면 추가 급등도 가능하지만, 첫 날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차트5] 고객예탁금의 사상 최대치는 SK아이테크놀로지
청약증거금의 사상 최대치는 LG에너지솔루션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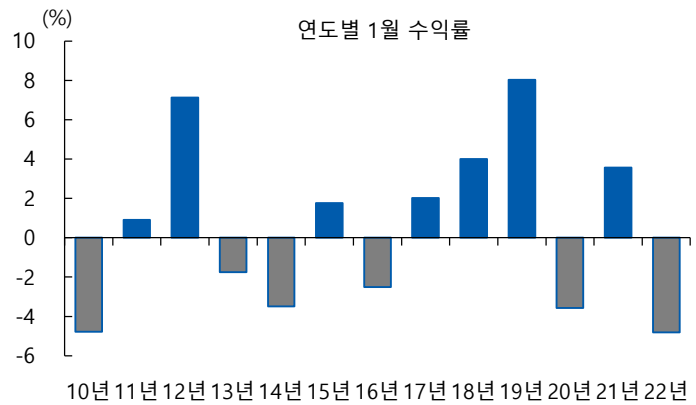
[차트6] 12.7조원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하고도
LG 화학에는 81.8%의 지분이 남는다



자료: DAR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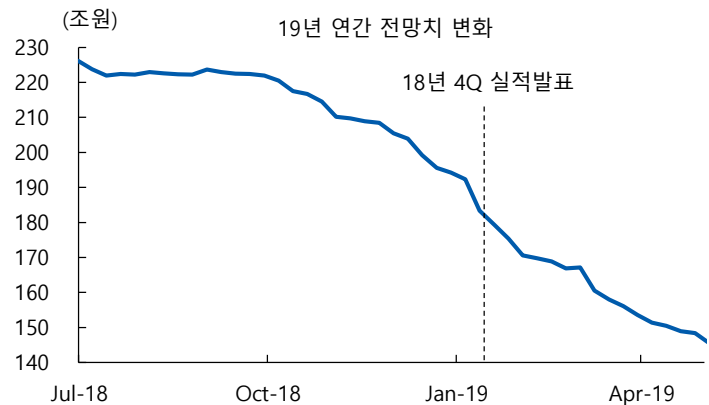
Key Chart

1월 수익률 -4.8%는 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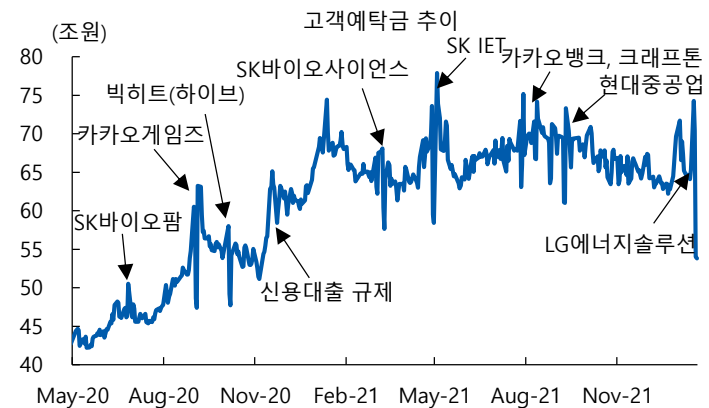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8년 4Q 전망치 달성을 69.7%,
19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으로 이
어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고객예탁금의 사상 최대치는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청약이 있었던
21년 5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